

포럼 22-14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진단과 새로운 모색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14:00~17:00

장소 구립서초유스센터 3층 스마트홀

참여  **YouTube** 생중계 및 현장참여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진단과 새로운 모색

사회: 유민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부연구위원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식	축사(영상)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05~14:10		환영사(영상) 이해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14:10~14:45	기조강연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 또는 담론에 대하여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4:45~14:50	휴 식	
14:50~15:15	주제발표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현황 및 과제 박하나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15:15~15:4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과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이형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15:40~15:50	휴 식	
“학업중단 예방 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좌장: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		
15:50~16:55	현장의견 수렴	김남우 조남중학교 교사 (학교 내 대안교실)
		황혜선 위례한빛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학업중단 숙려제)
		김영수 오산중학교장 (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 숙려제)
		이동수 부산자유학교 교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서지우 하늘샘학교 재학생
		온라인 의견 공유 및 질의응답
16:55~17:00	폐 회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진단과 새로운 모색

목 차



기조강연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 또는 담론에 대하여	1
------------------------------	---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주제발표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현황 및 과제	9
---------------------------	---

박하나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과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31
---	----

이형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현장의견 수렴

김남우 조남중학교 교사(학교 내 대안교실)	45
-------------------------------	----

황혜선 위례한빛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학업중단 숙려제)	48
-------------------------------------	----

김영수 오산중학교장(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 숙려제)	51
---------------------------------------	----

이동수 부산자유학교 교감(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54
----------------------------------	----

서지우 하늘샘학교 재학생	56
---------------------	----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진단과 새로운 모색**



기조강연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 또는
담론에 대하여**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 또는 담론에 대하여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학업중단, 레토릭을 묻다

근대사회는 학력사회이자 학습사회이다. 일제강점기 중에도 3.1운동을 기점으로 교육열기가 보통 학교(초등학교) 취학률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소년소녀들의 애절한 사연들이 늘 언론을 장식했다. 주된 사연은 학비(월사금)의 문제였다. 1930년대에 보통학교(초등학교) 학생의 대략 절반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는 상황이었다. 중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의 중퇴현상도 사회문제의 하나로 거론되었지만, 일제강점기의 중등교육이 일종의 엘리트 교육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등학교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해방 후 1960년대 중반의 중등교육 진학률이 70%에 육박하더니 불과 15년만인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0%를 넘어가는 대중교육시대¹⁾가 열리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고등교육 진학률이 50%를 넘는 대중고등교육시대가 열렸다(김현철, 1999; 2013). 근대화의 지표를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중등교육취학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근대화지표의 하나로 볼 때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100년 이상 걸린 것이 일본에서는 압축적으로(대략 80년)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불과 반세기도 걸리지 않았다(荻谷, 2001b). 그리고 1980년대에 대중수험시대(竹内, 1997)가 열렸을 때 대안학교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일까? 학교가 대중화하면서 학교부적응이 동시에 문제로 등장한다. 오랫동안 학교부적응의 문제는 방치되어 왔을 뿐, 학교는 필연적으로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낳는 것은 아닐까? 1971년에 출간된 이반 일리치의 <탈학교 사회>가 번역되어 소개된 것도 대중교육시대와 대중수험시대가 열린 바로 그 시기다. 대안학교의 이미지가 학교부적응의 이미지로 각인된 것도 이때부터지만 한편으로 대안학교운동이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후 마치 진자의 추처럼 ‘학업중단’을 둘러싼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난다. 한편으로는 학업중단을 막으려(예방하려) 하고, 한편으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보듬는다. 학업중단의 문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편에서는 위프로젝트, 대안교실, 학업중단숙려제로 대응하는 반면, 학교를 그만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법률과 센터도 만들어지고, 대안학교의 숫자도 늘어난다. 학교밖 청소년의 숫자는 몇 몇 예측치에도 불구하고, 오차의 범위를 가름하기 힘들다. 팬데믹 이전과

1) 카리아 다케히코(荻谷, 2001b)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0%를 넘는 시기를 ‘대중교육시대’로 명명함.

팬데믹 중, 그리고 사회적 거리가 완화된 시점 사이에서 학업중단 통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대한 엄밀한 진단은 어렵지만, 희미하게나마 학교교육이 불가피하게 학업중단을 유발한다는 근대교육의 딜레마를 확인시켜준다. ‘학업중단’은 ‘학비가 없어서’라는 레토릭에서 ‘학교부적응’의 레토릭으로 옮겨가더니, 요즘 유행한다는 ‘자퇴 브이로그’가 말해주듯 학업중단 레토릭은 부정적인 레토릭에서 긍정으로 레토릭으로까지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 ‘자퇴 브이로거’들은 일리치주의자들일까? ‘학업중단’은 행정적으로는 학교에 적응하지 않는 행위이다. 학교를 떠나는 것과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도 학업을 이어갈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을 무조건 학교에 머물게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일을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듯이 학교에 머문다고 반드시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다. 만일 수포자라면, 비록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간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이 학교를 다니고 다니고의 기준에서만 애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을 빌어 말하자면, 이반 일리치는 <탈학교 사회>를 통해서 오히려 학교가 학업중단을 빚어낸다고 말하는 것이다.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의 모호함이랄까 한계를 에피소드 하나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대안학교의 존재가 막 세상이 알려지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충남 홍성에 있는 잘 알려진 대안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학교의 상황과 교육방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서 문득 궁금한 사항이 하나 떠올라 질문했다. 학교부적응이라고는 없을 법한 그 학교에서도 퇴학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던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긴 퇴학이라는 말자체가 없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쉬다오련’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숙사 짐을 싸서 나가더니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인근 여관 같은 곳에 머물면서 수시로 학교로 놀러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선 얼마 후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확이니 퇴학이니 하는 그런 건 여기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학교에서 이른바 학업중단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을 쓰기엔 너무 궁핍한 교육현상의 일단면이었다. 그 아이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업을 이어갔거나 했다고보다는 그저 자신이 ‘머물곳(居場所, 이바쇼)’을 찾아 잠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것은 아닐까? 학업중단 예방사업은 결국 청소년들이 머물곳을 찾아주는 일이지 않을까? 학교든 학교 밖이든. 그곳이 공간이든 아니든. 머물곳은 있는지, 충분한지. 누구나 가장 학습하기에 적절한 자리, 달리 말하면 ‘머물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머물곳’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 이상 학교에서 ‘머물곳’을 찾지 못하면, 어디든 ‘머물만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

2. 경계해야 할 두 가지, 학교화와 시장화

대안학교, 대안교실, 위센터, 위스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와 같은 곳은 학교 안팎에 있는 이른바 ‘머물곳’의 예가 된다. 하지만, 그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또 어디론가 떠나거나 은둔해버리거나 하는 일도 적지 않다. <학교 없는 사회>로 번역되기도 하는 <탈학교 사회>는 단순히 학교가 없거나 또는 학업중단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에노 치즈코(上野, 2001)는 단순히 물리적인 학교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사회에 내재되는 것, 즉 <학교화>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탈학교 사회>가 아닌 사회를 <학교화 사회>로 명명하며, 학교화(된)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가부장제적 질서, 서열화, 꾀대화²⁾된 사회의 경직성, 학교 또는 교육시스템의 질서가 만연해 있다고 말한다. 비록 교육기본법상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화된 곳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대안학교든 어디든 학교화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곳은 또 다시 (학교화된) 학교일 수밖에 없다. 학교를 떠나든 아니든 ‘머물곳’이 없으면, 학교화된 공간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수능일, 온 사회가 수험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는 역설적이게도 수십만 수험생들의 숨을 틀어막는 ‘수험생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극도로 학교화된 사회의 상징적인 한 장면이다. <탈학교론>은 학교를 없애자가 아니라 학교화된 질서를 없애자라는 주장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학교 안이라고 탈학교 가치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학교 밖이나 대안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탈학교 가치가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교에 머문다는 것이 학업중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학교화된 곳이라면 어떤 이름이든 학교에 머무는 것과 같으며, 그곳엔 불가피하게 학업중단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학교밖 어딘가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경계를 허무는 일은 교육을 혁신하는 일이다. 이미 공립형 대안학교도 있고, 대안교실도 있다. 하지만 ‘대안’이라는 이름만으로 탈학교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적으로는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학교와 대안학교의 경계선은 과거와는 달리 모호해졌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대안학교를 등록하는 행정적 절차도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이것을 대안학교가 공교육³⁾으로 편입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학교화되었느냐 아니냐이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학교화다.

마이클 애플은 <미국교육개혁, 옳은 길로 가고 있나>에서 대안(적인) 교육의 시장화가 가져오는 폐단을 경계한 바 있다(Apple, 2003). 미국의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교육의 규모를 넘어서고, 학부모들의 관심사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넘어서는 사교육시장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들과 공교육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을 <학교화 사회>를 수성(守城)하려는 노력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미 비교과 영역이나 방과후 수업에는 사교육시장이 적지 않게 학교 안에 들어와 있고, 교육의 질만 좋다면 대수롭지 않을 일일 수 있지만 좋은 사교육이라도 궁극에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바 시

2) 우에노 치즈코는 <오야지사회>, 즉 <아저씨사회>로 표현한 것을 <꾀대화>로 번역함

3) 대안학교 등록을 공교육화로 표현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퍼블릭 스쿨의 본래적인 의미는 공공성을 갖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장화가 ‘교육의 질’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 놓는 일은 아직은 필요하다. 당장은 질이지만, 나중엔 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의 심화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으니, 시장화에 아직은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많은 공공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민간과의 협력은 시장화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다.

3.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올 변화

〈탈학교 사회〉에서 보여준 이반 일리치의 학교교육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대안은 그다지 신통치는 않다. 일리치는 학습의 무용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학교무용론을 얘기한 것이라 탈학교 사회 이후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당시로서는 그다지 시선을 끌 만한 것이 되지는 못했다. 일종의 원격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오늘날처럼 에듀테크 기술이 발달할 것을 예상했다면, 그는 더 많은 대안들을 제시했을지 모른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진 디지털 대전환은 탈학교적인 가치-근대적인 의미의 학교화로부터 벗어난 가치-를 실현하기 더 좋은 상황이 되고 있다. 에듀테크가 그 중심에 서 있고, 최근에는 AI가 그 중심에 서 있다. 물론 AI가 에듀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으나, 디지털 전환은 에듀테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학적 혁신을 넘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변화는 학교와 대안학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먼저, 에듀테크의 발달로 온라인 교육은 더 발달할 것이다. 이미 한국에는 사이버대학과 같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인강도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로부터 시작된 MOOC가 이런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어디서나 대학(university of everywhere)〉이 대학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은 과장되어 보일지 몰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는 초중등 교육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채 MOOC로만 공부해서 MIT 강좌의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결국은 MIT에 진학까지 하게 된 몽골의 소년 미안간바야의 사례는 변화의 시작이다. MOOC가 관리형이라면, 유튜브는 더 많은 온라인 콘텐츠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공간이다. 라이시(Justin Reich)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에듀테크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학습을 가속화하는 것은 나비 날개에 로켓을 다는 우스꽝스런 일이다(Reich, 2020). 그리고 흔히 채택되는 (에듀테크)기술,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기존 교실에서의 관행을 복제하는 기술인 경우가 많았다. 교사와 학생이 기존에 하던 것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은 별다른 학교교육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다(Reich, 2020). 게다가 새로운 자원(무료 온라인 자원일지라도)은 이미 부유한 학습자에게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크며, 무료 기술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부유한 학생들과 부유하지

많은 학생들 사이에 기회의 격차를 벌려 놓는 ‘교육의 마태효과’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또 다른 시장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반 일리치가 생각한 온라인교육의 학교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더 확장된 xMOOC나 협업을 강조하는 cMOOC와 같이 MOOC도 진화하고 있다. 물론 이마저도 사교육 시장이 먼저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교육부와 EBS가 제작하여 K-MOOC를 플랫폼으로 배포되고 있는 <위대한 수업(great minds)>은 이제 <어디서나 대학> 뿐 아니라 ‘1타급 수업’ 확산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학교의 경계를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일 수 있다. 같은 콘텐츠라면 굳이 모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거나 영상으로 남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나비날개에 로켓을 달아주는 어색한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미 관리형 스터디 카페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AI 수업이 가미되면 시장화가 가져올 마태효과와 우려가 커지지만, 이런 변화는 학교든 대안학교든 가릴 것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려와 가능성이 공존한다.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는 에듀테크에 차별적 공간은 있기 힘들다. 이미 관리형 스터디 카페나 사교육시장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몇몇 시도들은 아직은 라이시의 말대로 ‘나비 날개에 로켓을 달아주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일지 몰라도 새로운 교육생태 조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가 더 확산되면, 학교도 관리형으로 변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변화를 이반 일리치가 어떻게 볼까? 일리치가 살아 있다면 이번엔 <탈학교 사회>아니라 그야말로 <탈학교화 사회>로 개정판으로 내려할 것이다. 적어도 ‘탈학교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단순히 ‘1타’ 급의 좋은 수업이 아니라 에듀테크에 사회적 가치를 입힌 좋은 교육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이미 상상을 넘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네르바 스쿨>이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그 이상일 수 있다. 23학년도부터 한국에서도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인 태재대학이 출범한다. <어디서나 학교>가 더 보편화된다면, 학교와 대안학교의 경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행정적으로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 또는 담론은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이런 변화를 경계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학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가치의 측면에서는 시장화와 학교화를 넘어서야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곳이 ‘머물곳’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곳이 학교든 대안학교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4. 맺음말

지금 학교와 대안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것이다. 학업은 그 사이에서 연속적이기보다는 단속적이어서 불가피하게 학업중단이라는 레토릭이 유효할지 몰라도 그 경계가 사라질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학교도 대안학교도 시공의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운명 앞에 서있다. 뉴노멀 시대에 맞는 행정의 매직은 어떤 시공 속에 존재하게 될까?

■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7). 대안교육백서(1997~2007).

김현철(1999).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현철(2013). 青少年政策の日韓比較. 渡部秀樹外, 「勉強と居場所—学校と家族の日韓比較」. 勁草書房.

Apple, Michael, 성열관 옮김(2003). 미국교육개혁,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우리교육.

Carey, Kevin(2016). The end of college—Creating the Future of Learning and the University of Everywhere.

Illich, Ivan, 박홍규 옮김. (2009). 「학교없는 사회」. 생각의나무.

Reich, Justin, 안기순 옮김. (2020). 「언택트 교육의 미래」. 문예출판사.

荻谷剛彦(2001a), 階層化日本と教育危機. 有信堂.

荻谷剛彦(2001b), 大衆教育社会のゆくえ—学歴主義と平等神話の戦後史. 中公新書.

竹内洋(1999). 立志苦学出世—受験生の社会史. 講談社.

上野千鶴子(2002). サヨナラ、学校化社会. 太郎次郎社.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진단과 새로운 모색**



주제발표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현황 및 과제

박하나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정규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가능성 및 의도가 있는 학생, 혹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21: 14).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다양한 사유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있고, 그 수는 해마다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다.⁴⁾

인구수 감소, 학업중단율이라는 산술적인 논의 혹은 노동생산성과 같은 효율성에 근거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다. 코로나 19 이후 교육격차는 심각해지고 있고, 미래 학교 논의와 맞물려 ‘학교’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학교와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에 대한 담론 위에서 ‘학업중단 예방’의 의미와 ‘소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의 의미를 깊이 있게 고찰해 볼 때이다.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아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을 보장하는 학교(equal education for all),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leave no one behind)’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II.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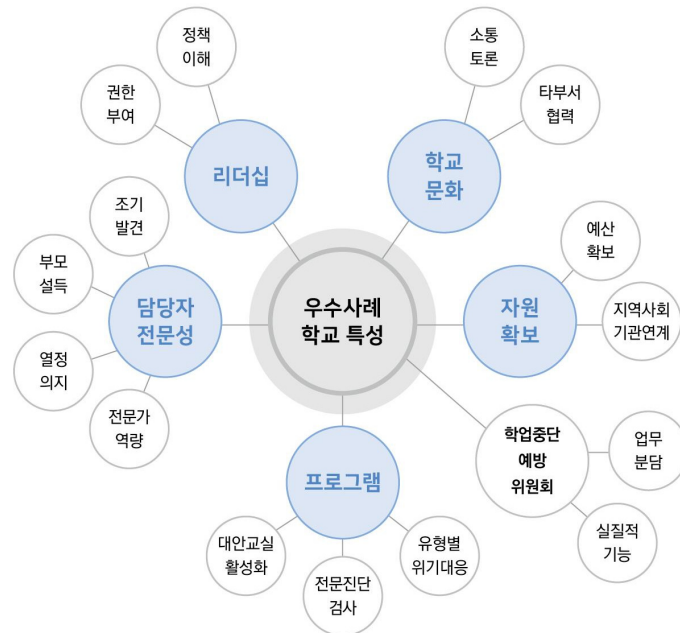
1. ‘소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의 의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은 학교 내에서 소수집단에 속하는 학생이다.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도 소수이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어서도 취약집단인 경우가 많으며,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취약집단은 현실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의 학습과 적응, 성취와 진학에서의 취약성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류방란 외, 2013). 동료교사들은 다수의 학생들에 비해 한 두 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일이 과도한 관심과 지원을 쏟는 것이 아닌가 비판하기도 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숙려제나 대안교실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비단 학업중단 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빈곤가정, 장애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기도 하다.

우리는 소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가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의 원인을 학생 개인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수업방식과 교육과정, 교육제도, 학교문화, 나아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반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하나, 김영지(2021)의 연구결과에서

4)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학년도~2019학년도 학업중단학생 수는 각각 50,057명, 52,539명, 52,261명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도출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우수사례 학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수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맥락이 “학교민주주의(School Democracy)”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⁵⁾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교 특성〉

“학교민주주의”란 민주적 공동체로서 학교를 지향하는 의미를 지니며, 민주적 학교는 “학생이 학교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학교(Miller, 2012)”, “모든 학교구성원이 권리와 권력을 동등하게 가지는 민주적 공동체(Korkmaz & Erden, 2014)”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민주주의란 생활공동체인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존엄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평등한 존중의 원칙을 토대로 서로 관계를 맺고 그 누구의 배제나 소외 없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모습과 방식을 의미한다(백병부 외, 2019).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민주주의 기본가치에 따르면, 민주적 학교(Democratic School)의 전제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며, 참여와 책임, 규칙 준수라는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공동체의식, 다원성, 학생과 교사의 권리보호를 민주적 덕성으로 추구한다(오유석 외, 2016: 33).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특징’을 외적 조건(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 학교문화, 관리와 경영, 교사와 협력파트너의 전문성, 학습문화, 성과의 6영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장은주 외, 2015: 박하나·옥일남, 2019: 65에서 재인용). 국제엠네스티는 학교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학교생활 영역을 거버넌스, 관계,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학교환경으로 그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국제엠네스티, 2012).

5) 2021년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방안”의 연구결과이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중,고 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기관 4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총 9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소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 가치로 추구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민주적 학교를 지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리더십, 의사결정구조), 학교문화(관계), 교육과정(프로그램), 외부환경과 같은 영역들이 상호작용하여 학교 맥락을 형성한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학교특성들, 즉 교사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관리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협력하는 문화, 친구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해 줄 수 있는 학급 토대, 교사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들, 풍부한 물리적·인적 자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유의미한 학습경험이 가능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민주적 학교의 조건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의미

그렇다면 “소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의 의미를 토대로 할 때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한가? 첫째, 대상과 목적 측면에서 “전체 학생을 위한 교육적 성장을 강조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교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확장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이 특정 취약계층의 지원과 학업중단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복지의 문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중등학교 수업시간에는 자거나, 떠들거나, 방치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방치되는 학습자의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성열관, 2018; 이윤미 외, 2019). 학생의 삶의 질은 학교생활과 수업시간의 학습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의 삶의 문제일 수 있다. 학교교육이 변화하지 않으면 교실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학생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류방란 외, 2018).

둘째, 학업중단 예방 정책 논의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 그동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교육복지와 특정한 취약집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적 교육복지 간 논쟁이 있어 왔다(이희현, 유경훈, 2021: 9). 그러나 학업중단 위기 학생 즉, 소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와 민주적 학교가 같은 지향점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는 교육복지의 두 가지 접근이 상대적이고 연속적인 개념임을 뒷받침한다.

“학교복지”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 및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 개인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것,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갖게 하는 포괄적인 목적을 지녔다(이희현, 유경훈, 2021: 16). 따라서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고 민주적인 학교 일상을 경험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학교

로의 여정' 그리고 '소외학생에 대해 집중적이고 맞춤형의 지원을 하는 학교로의 여정'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결핍모델'이 아닌 '성장모델'에 기반한 교육복지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실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시작은 결핍모델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취약집단을 진단하고, 결핍영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른다면 대상 집단에 대해서 결핍이 있다는 부정적 편견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⁶⁾ 결핍해소와 시혜적 지원이 아닌 학생들의 성장과 인간다운 삶, 잠재력 극대화에 방점을 찍는 '교육활동 중심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활동 중심 지원이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교육 과정, 학교문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업무 운영에 있어서도 특정 부서나 담당자만이 하는 부가적인 업무가 아니라 교직원 전체의 업무로 인식될 것이고, 협력적 수행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식의 전환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소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교육의 포용성이란 모든 학생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소속감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이희현, 유경훈, 2021: 8). 아이들이 학교생활 동안 다름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소외되거나 낙인찍히지 않고 소속감을 형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배움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안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차이와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지니고 연대하며,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의 무게는 동등하여야 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긴 시간동안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배경, 능력, 정체성, 그리고 성장의 속도 및 경로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사회적 포용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III. 학업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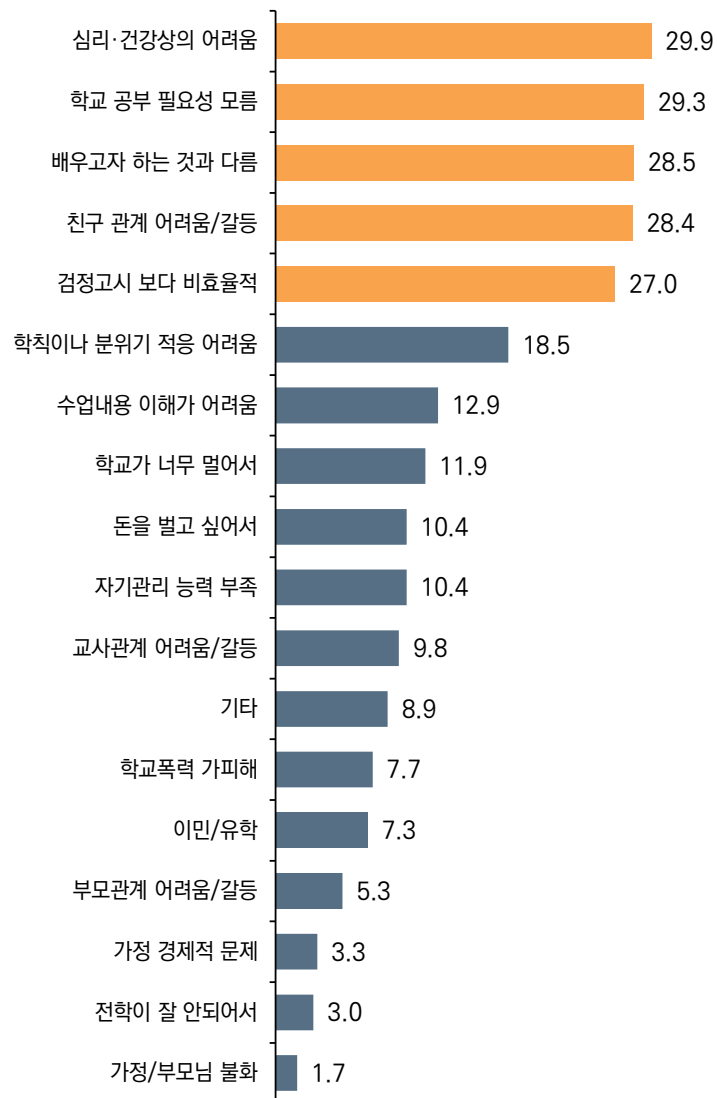
앞 장이 학업중단 예방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소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것이라면, 3장부터는 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통해 소수학생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름을 포용하고 모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모든 교사들이 협력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소수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 등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지 냉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6) 인터뷰를 통해 만난 많은 현장 교사들과 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생기는 것이었다.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명백한 데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결핍이 있다”는 인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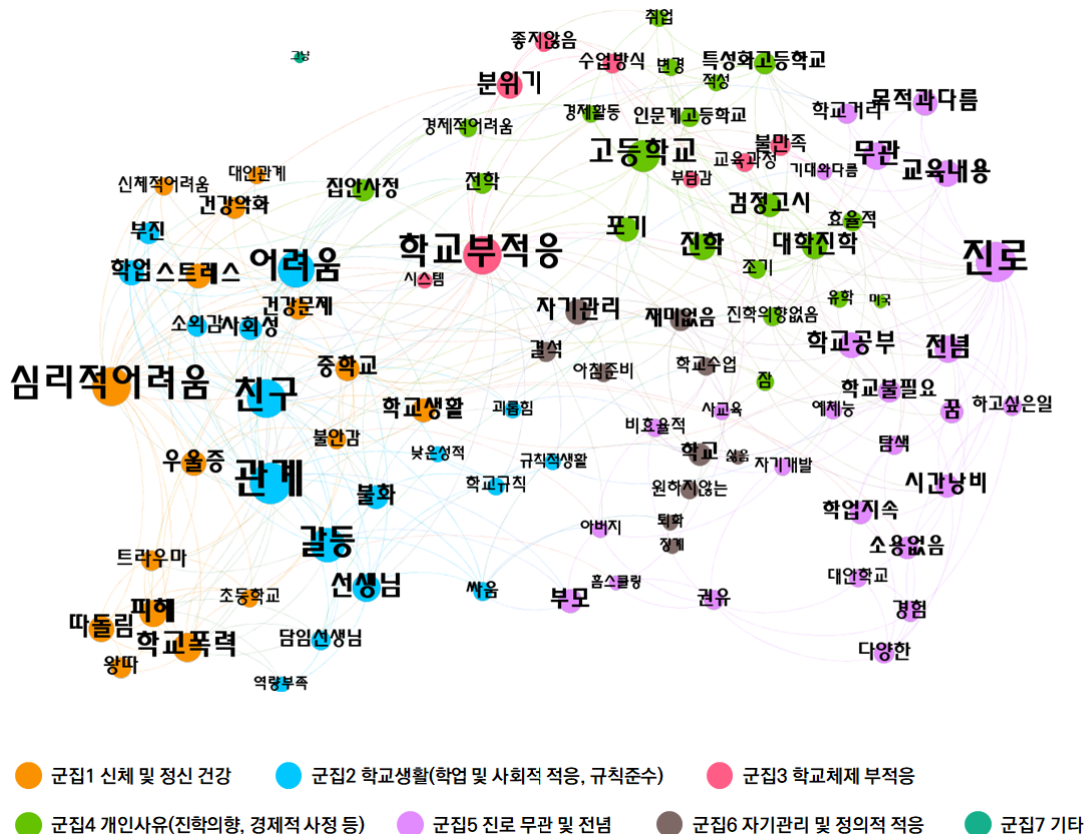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의 눈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자. 김성은, 박하나, 김현수(2020)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대안학교(미인가) 소속 학업중단 청소년 8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응답한 학업중단 과정과 사유, 학업중단 예방 정책에 대한 인식, 학교 중단 이후의 삶,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학업중단 사유

학업중단 사유는 ‘심리·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공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서’, ‘학교 수업 내용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과 달라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검정고시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유기술식 문항을 네트워크분석 한 결과 7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들 군집은 다시 ‘사회 및 정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의 상위 군집으로 묶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언어 중심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심리적 어려움’, ‘관계’, ‘친구’ 등이 상위 고유벡터 중심성을 가지는 핵심어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로는 여러 범주의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크게 학업, 관계, 진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하나, 김성은, 김현수, 2021).

첫째, ‘진로’와 관련하여, 청소년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고민과 방향을 하였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청소년이 일반고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대학입시와 시험, 성적 등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자퇴를 하게 되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특성화고에 진학한 청소년의 경우도 취업준비와 대학입시 준비 사이에서 방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진로계열이 분리되어 있고 계열 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은 현실에서 전편입학 절차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진로변경제도, 직업위탁교육제도 등 제도와 진로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학업’과 관련하여,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반대로 입시와 성적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과 경험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학교가 학생들에게 진정한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학교는 수능준비를 위한 사교육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하고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찾을 수 있는 유연한 경로가 없다면 학교는 구속의 틀로 존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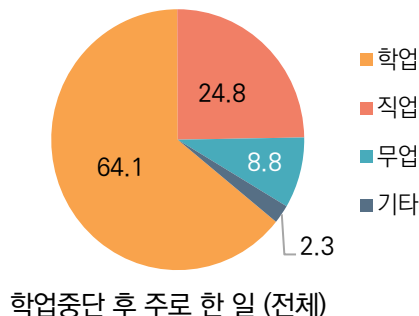
셋째,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과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청소년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 '학교를 그만두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33.4%)가 '함께 하면 즐겁고 편한 학교 친구'라고 답하였고, 네트워크분석 결과에서도 '심리적 어려움', '관계', '친구'가 상위 중심성을 가지는 핵심어로 도출된 것과도 연결된다. 이같이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을 지속함에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의 갈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9.8%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겪는 문제에 대한 담임교사의 대처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하였다. 교사와의 갈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 학생과 교사 간 갈등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학생이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 숙려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학교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학업 중단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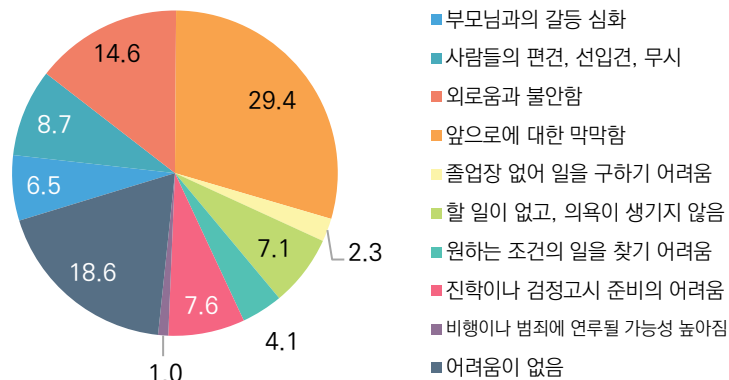
학업중단 후 지금까지 주로 한 일

○ 학업중단 후 지금까지 주로 한 일은 '학업(64.1%)', '직업(2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업중단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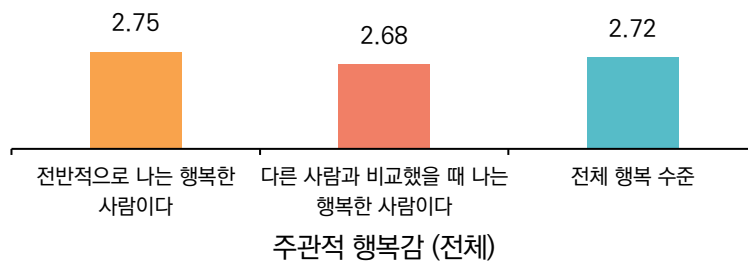
- 학업중단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29.4%)', '어려움이 없었음(18.6%)', '외로움과 불안함(14.6%)', '사람들의 편견, 선입견, 무시(8.7%)', '진학이나 검정고시 준비의 어려움(7.6%)'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범죄나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큼', '부모님과의 갈등 심화', '할 일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음', '취업장이 없어 일을 구하기 어려움'이 포함됨



학업중단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전체)

주관적 행복감

- 청소년이 생각하는 전반적 행복감 평균은 2.75, 상대적 행복감 평균은 2.68, 주관적 행복감 전체 평균은 2.72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 청소년과 현재상태가 무업인 경우 비교적 낮았음
- 2019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의 행복감은 각각 3.30, 3.31, 중학교 2학년은 3.09, 3.15로 나타남



주관적 행복감 (전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막막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주관적인 만족도도 일반적 아동, 청소년 패널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최대한 예방하는 것,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충분히 고민의 시간을 주어 학교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자기만의 삶의 경로를 찾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세심하게 확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IV. 학업중단 예방 정책 현황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을 시도하였다. 2014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700호)」을 제정하였고,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⁷⁾, 학교 내 대안교실⁸⁾, 대안교육 위탁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2014년 전면 시행되었으며, 2021년 3월 기준 전국 2,275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위기 학생 위주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교육부, 2013). 전국에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 155개교, 중학교 720개교, 고등학교 385개교이다.⁹⁾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30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위탁 학생(또는 예정) 수는 2019학년도 8,417명, 2020학년도 12,347명(정원 기준)으로 나타났다(최인재 외, 2020: 57-58). 학업중단 학생들은 학교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1. 학업중단 숙려제

숙려제에 대한 인지도(70.9%)는 다른 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참여한 사례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학업중단 전이라면 숙려제에 참여 의향이 없다고 53.2%의 학생들이 답하였으나, 숙려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참여 의사를 70.3% 밝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학업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숙려제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의미있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숙려제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도 보여주었다. ('만족한다'는 66.0%이고, 불만족은 34.0%).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기관 연결(22.2%), '기간이나 횟수 늘림(18.0%)', '상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14.4%)'을 요구하고 있었다. 숙려제 미참여 이유로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62.5%)'라고 많은 학생들이 답했다. 숙려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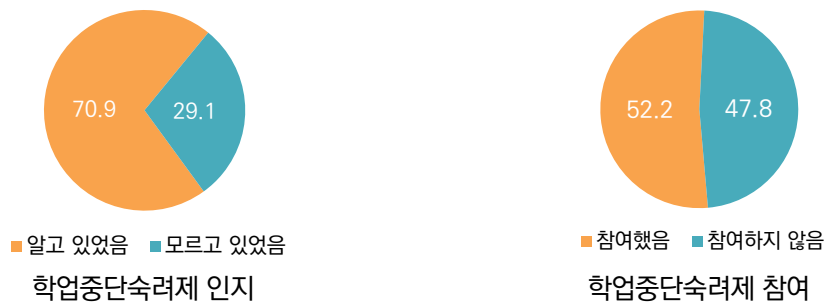
7)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8) '학교 내 대안교실'이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학교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별도의 학급이다(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

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하여 조사(2021.05.31.기준)한 바에 따른다.

학업중단숙려제 인지 및 참여

- 학업중단 시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가 70.9%, ‘모르고 있었다’가 29.1%이었고, 학업중단 전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사례는 52.2%**로 나타남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사례는 52.2%, 참여하지 않은 사례는 47.8%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참여한 비율과 그렇지 않은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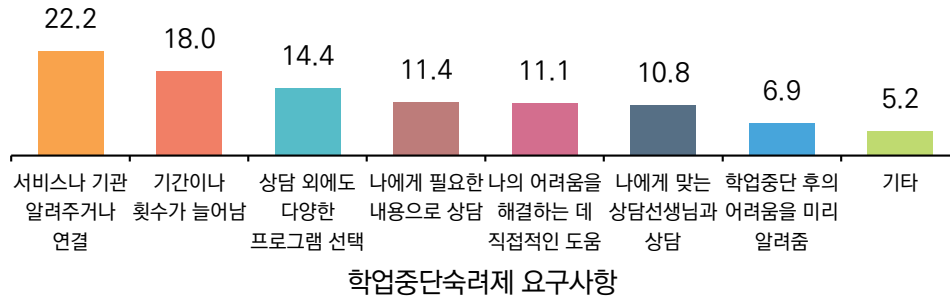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의향

- 학업중단 전이라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은 46.8%이고, **참여의향이 없는 경우는 53.2%**로 나타남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경험이 있는 사례 중 재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70.3%**,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 중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24.3%로 나타남
- 학업중단 사유가 부모/가정(39.1%)인 경우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재참여 의사가 높았음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례 중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24.3%, 없는 경우는 75.7%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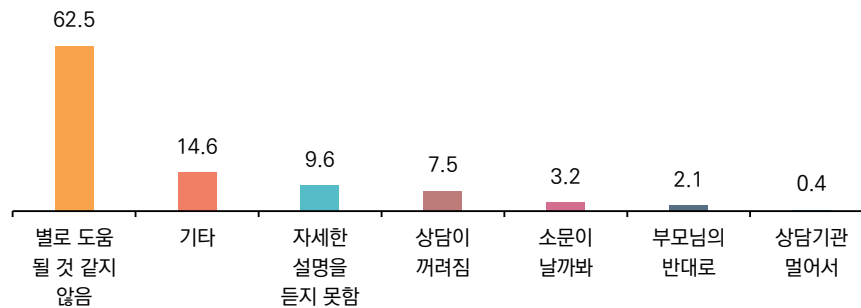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만족도 및 요구사항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후 ‘만족한다’는 66.0%이고, 불만족은 34.0%
- 주요 요구사항은 학업중단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기관 연결(22.2%), ‘기간이나 횟수 늘림(18.0%)’, ‘상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14.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업중단숙려제 미참여 이유

○ 학업중단숙려제에 미참여한 이유는 '설명을 들었지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62.5%)', '기타(14.6%)',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함(9.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업중단숙려제 미참여 이유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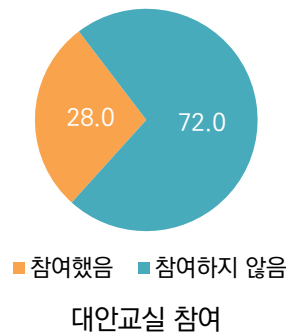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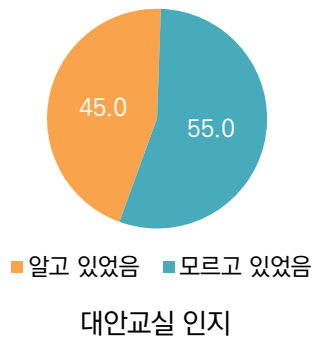
2.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실에 대한 인지도는 숙려제에 비해 낮았다. 반 이상(55%)이 모르고 있었고, 참여한 사례는 28%에 불과했다. 그러나 숙려제와 마찬가지로 대안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76%가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타 대안교육 위탁제도, 기초학습지원제도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해 보았다. '알고 있었다'와 '모르고 있었다'의 비율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비슷했고, 이러한 제도에 참여한 학생은 20%대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는 1/5정도만이 대안교실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예방 제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학업중단예방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들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업중단 전이라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를 경험한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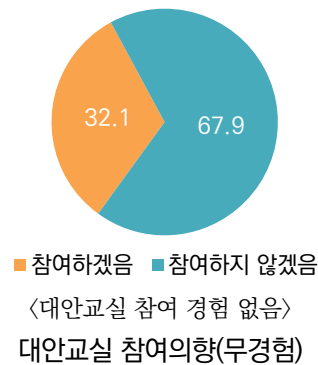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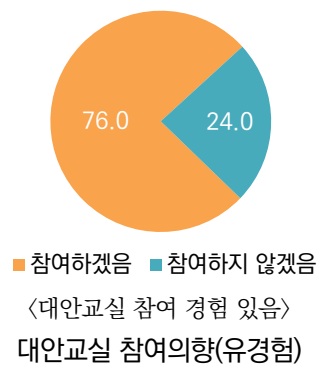
대안교실 인지 및 참여

○ 학업중단 시 대안교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가 45.0%, ‘모르고 있었다’가 55.0%이었고, 학업중단 전 **대안교실에 참여한 사례는 28.0%**로 나타남



대안교실 참여의향

○ 학업중단 전이라면 대안교실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43.2%이고, **대안교실 참여 경험이 있는 사례 중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76.0%**,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재참여 의사가 높았음
○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 중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32.1%로 나타남.



위탁교육 인지 및 참여 여부

○ 학업중단 시 위탁교육에 대해 ‘알고 있었다’가 55.1%, ‘모르고 있었다’가 44.9%이었고, 학업중단 전 **위탁교육에 참여한 사례는 21.7%**로 나타남

위탁교육 참여의향

○ 학업중단 전이라면 위탁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43.2%이고, **위탁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사례 중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76.0%**,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 중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32.1%로 나타남

기초학습 지원 제도

- 학업중단 시 기초학습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30.0%, ‘모르고 있었다’ 70.0%이었고, 학업중단 전 기초 학습 지원 제도에 참여한 사례는 24.6%로 나타남

기초학습 지원 제도 참여의향

- 학업중단 전이라면 기초학습 지원 제도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36.5%이고, **기초학습 지원 제도 참여 경험이 있는 사례 중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68.9%**,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 중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는 18.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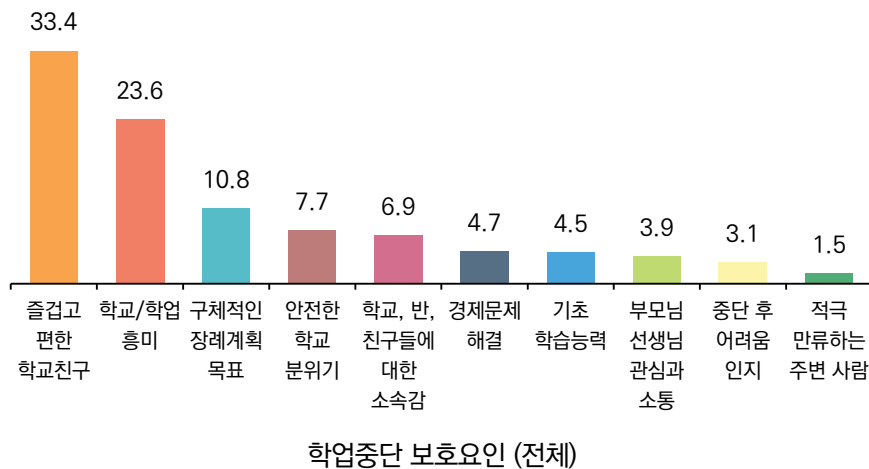
V. 학교 개선 요구사항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학교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어떤 점이 보완되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1. 학업중단 보호요인

학업중단 보호요인

- 학교를 그만두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함께하면 즐겁고 편한 학교친구(33.4%)**’,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대한 흥미(23.6%)**’, ‘구체적인 장래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는 것(1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 외 응답자 특성에 따라 ‘학교, 반 친구들에 대한 소속감’, ‘폭력, 비행없는 안전한 학교 분위기’, ‘비용, 돈, 경제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주요 보호요인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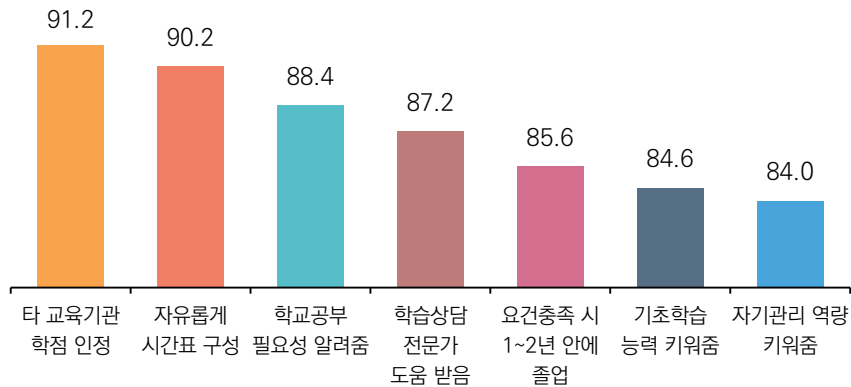


2. 학교 개선 요구사항

개인(학업) 측면

○ 개인(학업) 영역에서 학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타 교육기관에서 배운 학점을 인정(91.2%)',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간표를 구성(90.2%)',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알려줌(8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 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내 공부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는 학습상담 전문가의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음', '1~2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면 졸업', '수업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을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키움'도 주요 개선사항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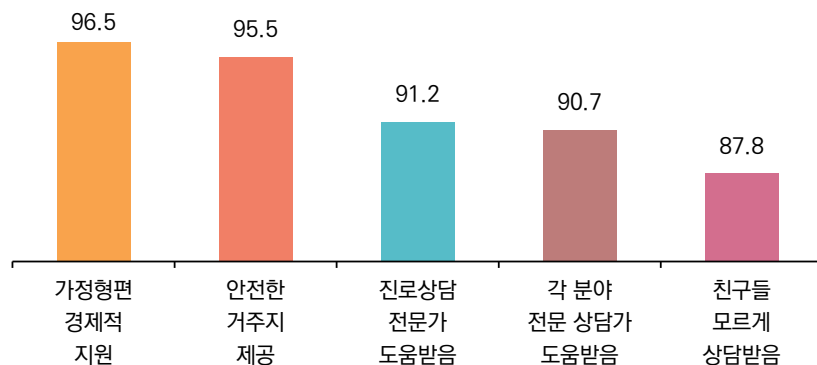


학교의 개선 필요사항 : 개인(학업) (전체)

개인(상담) 및 가족측면

○ 개인(상담) 및 가족 영역에서 학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96.5%)', '가정 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제공(95.5%)', '내 진로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진로상담 전문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91.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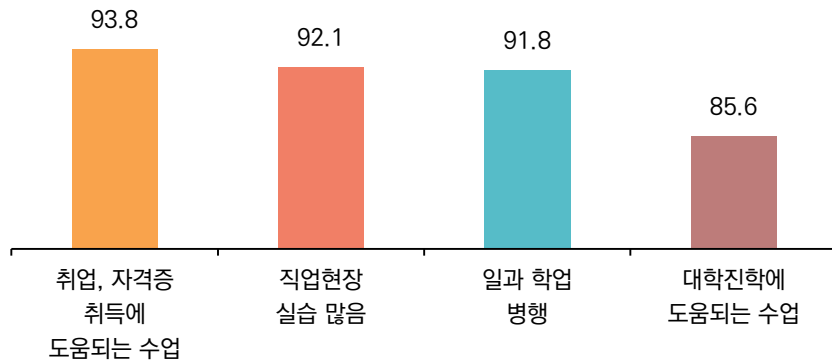
- 그 외에도 응답자 특성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 및 프로그램의 다양한 지원'도 주요 개선사항에 포함



학교의 개선 필요사항 : 개인(상담) 및 가족 (전체)

개인(진로)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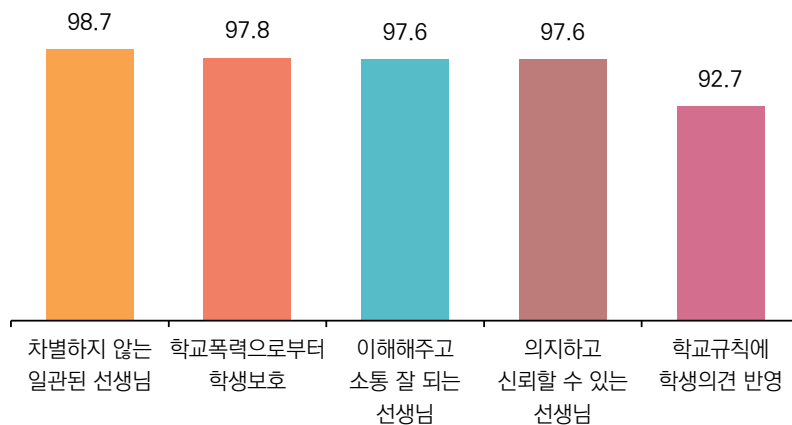
- 개인(진로) 영역에서 학교의 개선필요 사항은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 위주로 들음(93.8%)', '직업현장에서 실습이 많음(9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응답자 특성에 따라 '직업을 가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주요 개선사항에 포함됨



학교의 개선 필요사항 : 개인(진로) (전체)

학교문화 및 교사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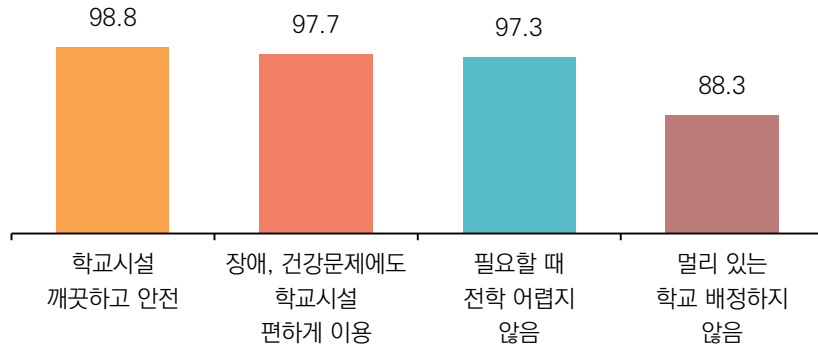
- 학교문화 및 교사 영역에서 학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일관된 선생님이 있음(98.7%)', '학교가 괴롭힘, 교내폭력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97.8%)' 순이었으나, 5개 문항이 모두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응답자 특성에 따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음'과 '우리를 잘 이해해주며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이 있음'도 주요 개선사항에 포함됨



학교의 개선 필요사항 : 학교문화 및 교사 (전체)

학교환경 및 정책 측면

- 학교환경 및 정책 영역에서 학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함(98.8%)’, ‘장애나 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학교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9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응답자 특성에 따라 필요할 때 전학이 어렵지 않음도 주요 개선사항에 포함됨



학교의 개선 필요사항 : 학교환경 및 정책 (전체)

함께 하면 즐겁고 편한 친구 한명이라도 있으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수업이 아니더라도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활동이 있으면 바랬다. 학교 안에서 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관계맺음’ 중심 교육활동,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다. 학업에 있어서는 타 교육기관에서 배운 학점을 인정해 주고,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학교 수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와 같은 새로운 교육제도가 이 아이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희망을 걸어본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안정한 거주지에 대한 요구도 높으며, 현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원하는 현실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한다.

VI. 남겨진 과제

1. 검정고시를 위한 학업중단 어떻게 할 것인가?

고등학교 자퇴 중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다. 서울의 주요 대학이 정시 모집 비중을 확대하며 수능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수능에 ‘올인’하려고 자퇴를 선택한다. 학업중단 예방 정책이 이 학생들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이모(18)양은 자퇴 후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지만, 내신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고1이 끝난 후 자퇴를 결심했다.

지난해 고2 1학기 기말고사를 본 후 자퇴한 이양은 현재 재수종합학원을 다니며 수능 준비 중이다. 이양은 “고1에 수시로 갈 수 없는 내신성적이 나와 수능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학교 시험이나 수행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중략)

고등학생 중 절반은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 2020년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은 1천964명(전체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51.40%), 지난해는 2천746명(〃 48.69%)이다. 올해 수능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수는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출처 : 경인일보 2022.10.30.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030010004951>

2. 초등학교 ‘기타’ 이유 들여다보았는가?

2021년 학업중단 학생이 4만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만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만131명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초등학교급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출국’ 이외 ‘기타’ 사유 중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보다는 부모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3. 고교학점제로의 전환, 준비되었는가?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으로 학교 제도 및 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다. 미래 학교로의 변화에 학업중단 예방 정책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오히려 학업중단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혁적인 학교 환경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미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 담론 형성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VII. 나가며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방향성(소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학교 민주주의의 실현)과 현실의 어려움(학생들의 경험/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그 간극이 너무 커서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정책의 방향성이 맞다면, 왜곡된 학교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그 간극을 채워나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학업중단 예방 정책과 교육복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가는 것, 학업중단 예방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도될 수 있도록 인력보충과 외부기관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 학교의 기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답하는 것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가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힘 센 계층이나 다수의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성찰해보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균형 있게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학생은 학교 안에서 서로 다른 학습속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각자에게 맞는 배움의 경로를 찾아갈 능력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위기 학생이 대안교실에서 작은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가는 것,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음을 주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성세대가 틀지어놓은 교육과정과 단계를 밟아가는 데 힘겨운 학생이 있다면, 교실 안 관계의 부대낌이 버거운 학생이 있다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두가 학교민주주의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적인 경험이란 이상적이고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작은 차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Apple & Bean, 2007: 22).

참고문헌

- 국제 엠네스티(2012). 인권친화 학교 만들기: 전 세계 학교를 위한 가이드북. Amnesty International.
- 교육부(2013).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보도자료(2013. 11.). 세종: 교육부
- 교육부, 여성가족부(2013).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보도자료(2013. 11.). 세종: 교육부
- 김성은, 박하나, 김현수(2020). 학업중단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박하나, 손진희 (2021).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방란, 김경애, 김성식, 이윤미, 정연순 (2013).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김경애, 이상은, 한효정, 이윤미, 이종태, 최항섭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하나, 김성은, 김현수(202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와 경험 이해: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시사점. 한국청소년연구, 32(3), 261-288.
- 박하나, 김영지(202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학교민주주의와 교육복지의 시사점. 교육논총, 42(2), 63-81.
- 박하나, 옥일남 (2019).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 조성 방안 탐색: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교사들의 민주시민 교육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시민교육연구, 51(1), 61-94.

- 백병부, 이수광, 이병희, 남미자, 장은주, 이형빈 (2019). 학교민주주의의 개념과 실행 조건 연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성열관 (2018).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교실사회학 관점. 서울: 학이시습.
- 오유석, 김형철, 신승배, 장은주, 이지연 (2016). 현장친화적 학교민주주의 평가지표 모형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이윤미, 성열관, 김훈호, 윤선인, 임언 (2019). 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연구. 국가교육회의.
- 이희현, 유경훈 (2021).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유형별 주요 의제 분석: 11.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최인재, 송원일, 배수인 (2020).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연보. 세종: 교육부.
- Apple, M. & Beane, J. (2007). 마이클 애플의 민주학교: 혁신교육의 방향을 묻다(Democratic schools: Lessons in powerful education) (강희룡 번역). 서울: 살림터.
- Korkmaz, H. E., & Erden, M. (2014). A delphi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tic school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7(5),365-373.
- Miller, R. (2012). Free schools, free people: Education and democracy after the 1960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진단과 새로운 모색**



주제발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과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이형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대안교육

2022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형태

quti2000@ice.go.kr

“

대안교육이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

학업중단 예방이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거나, 대안교육을 안내 및 제공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

2022

인천 대안교육 현황

/ 01

대안학교/대안교육특성화고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 대안학교 3교, 대안교육 특성화고 1교
- 학력인정

/ 02

학교 내 대안교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매년 초·중·고 70개~100개 교실
- 학력인정

/ 0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 32기관/ 2년마다 공모 재지정
- 학력인정

/ 04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현재 6기관 등록
- 학력인정 안됨

quti2000@ice.go.kr

“ 전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2022년 기준, 홈페이지 공개된 예산서 참고)

연번	지역	기관수	기관별 지원금(천원)	예산지원	비고
1		43	17,700	항목별	인건비:인당 2,000천원, 학급운영비: 35,000천원 (공립2교, 민간 38기관, 타시도 3기관)
2		5	34,000	일괄	프로그램운영비만 지급
3		5	108,000	일괄	치유형2, 학교부적응2, 미혼모1
4	인천	14	기관별 상이, (평균) 367,700	항목별	장기5, 치유4, 성인지3
5		11	46,000	일괄	장기2, 미혼모1, 학교적응력5, 보호관찰3
6		20	36,954	일괄	대안교육, 직업교육
7		10	7,100	일괄	학업중단 예방 3, 직업위탁 15, 한부모1
8		6	1,000	일괄	중장기6
9		25	1,680	일괄	공립2, 국립2, 민간19, 치유1, 한부모2
10		37	5,000	일괄	미혼모1, 직업위탁36(별도지원, 2백만원)
11		2	40,000	일괄	중장기2, 단기 50기관 별도(기관별1백만원)
12		0	0	일괄	직업위탁21(50백만원)
13		16	75,000	일괄	대안교육 16
14		31	1,452	일괄	대안교육 31
15		20	25,300	일괄	대안교육 14
16		10	53,012	일괄	대안교육
17		1	28,000	일괄	미혼모1

0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정서·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교육 지원
- 미혼모 학생지원
-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 교육
- 현재 초·중고 300여명의 학생 위탁중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급 운영 현황 (고등학교)

1. 성산효마을학교 5학급
2. 한오름학교 4학급
3. 하늘샘학교 5학급
4. 푸른꿈학교 4학급
5. 늘품학교 3학급

1학급 정원 12명
총 정원 252명

교직원 현황 : 관리자 5명, 행정 5명, 전임교사 23명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급 운영 현황

1. 조아학교: 중·고등 2학급
2. 킬리안공감학교: 중·고등 2학급
3. 마음더하기학교 : 중·고등 3학급
4. 희망오름학교 : 초등 2학급

1학급 정원 10명
총 정원 90명

교직원 현황 : 관리자 5명, 행정 5명, 전임교사 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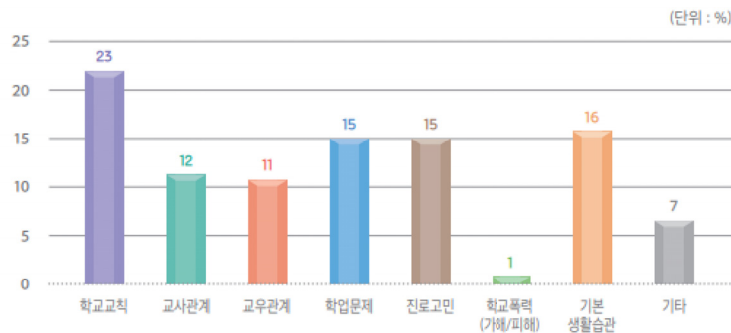
“인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현황(’22.10. 기준)

구분	급별	학교명	설립 연도	편성학급수				학생수(정원)				위탁율 (%)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장기 (5기관)	고	성산호마을학교	2004	·	·	5	5	·	·	58 (60)	58 (60)	96.7
	고	하늘샘학교	2010	·	·	5	5	·	·	60 (60)	60 (60)	100.0
	고	무른곶학교	2013	·	·	4	4	·	·	39 (48)	39 (48)	85.4
	고	한오름학교	2009	·	·	4	4	·	·	40 (48)	40 (48)	83.3
	고	늘품학교	2018	·	·	3	3	·	·	30 (36)	30 (36)	94.4
치유 (4기관)	중·고	조아학교	2017	·	2		2	·	4 (10)	13 (10)	17 (20)	85.0
	중·고	킬리안공감학교	2017	·	2		2	·	8 (10)	11 (10)	19 (20)	95.0
	중·고	마음더하기학교	2018	·	3		3	·	8 (10)	17 (20)	25 (30)	83.3
	초	희망오름학교	2019	2	·	·	2	12 (20)	·	·	12 (20)	60.0
성인지 (3기관)	초·중·고	꿈이루미학교	2020		1		1		1 (5)		1 (5)	20.0
	초·중·고	참사랑학교	2020		1		1		2 (5)		2 (5)	40.0
	초·중·고	조이디딤학교	2020		1		1		0 (5)		0 (5)	0.0

01 Read & Lea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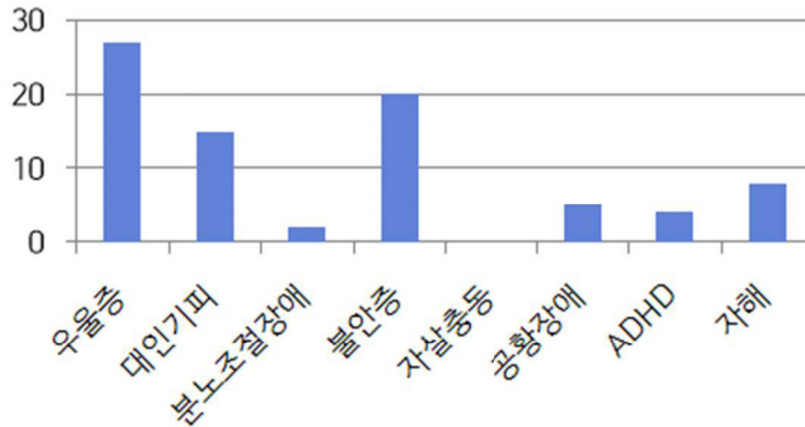
“2021년 장기 위탁교육기관 위기 요인별 현황

● 학교생활 부적응 사유



01 Read & Learn

“ 2021년 치유형 위탁교육기관 위기 요인별 현황



01 Read & Learn

“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 위치: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 직원: 실장 1명, 전문상담사 3명
- 업무: 1) 디딤돌교실(1월, 2회): 재취,입학생 대상
2) 징검다리교실(연중, 20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사전교육
3) 부자일체감동캠프(연중, 40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4) 닳별교실(연중, 5회):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부모 교육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컨설팅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6)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 지원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업지속 현황

2019년 94.4% ➡ 2020년 97.8% ➡ 2021년 95.3%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성과

- 3개년간 학업지속율 94% 이상 달성
- 적극적 운영지원을 통한 「2022년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 선도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스템 구축(문서24, 성적처리프로그램 개발, 회계시스템 구축(핵교(核校)프로그램), 원격수업 기반 구축 등)
- 3개년간 진학/진로 실적
 - * 4년제 대학: 19명, 2년제 대학: 112명, 취업: 66명

“

2022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성과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과정 운영으로 6명 자격증 12월 취득 예정
- 대한산악연맹 주최 오르락내리락 등산·산악스포츠 교육(2022.06.16) 20명 수료
- 2022 무한도전 뷰티 콘테스트(2022.06.11) 국가실기 시대메이크업 대상, 인조네일 금상, 고교부 패션메이크업 은상, 특별상 수상
- 광명시 종합무술대회(2022.09.24) 대련 해비급 우승 2학년
- 인천광역시장애인 전국피트니스 선수권대회(2022.10.02) 고등부 2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과정 운영(5명 12월 취득 예정)
- 컴퓨터마스터 대안교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ITQ(한글엑셀 A등급:2명, B등급:3명, C등급:1명) 총 6명 자격증 취득
- 드론 & RC카 대안교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무인 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자격증 5명 취득
- 학생자치회 성금기탁 언론보도

“ 2022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성과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제언

- **교육청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공동의 목표 공유, 협력적 관계 유지
 -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학교장·교무부장·행정실장 협의회)
-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교육과정 컨설팅,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교육과정편성, 행정능력 증진 연수 등
 - 위탁교육기관이 목적에 맞게 운영 되도록 피드백 필요(교직원 워크숍·연수)
- **학업중단 예방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으로 범위 확장**
 - 위탁기관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추구
- **대안교육 운영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환경 조성 지원**
 - 교수학습비 지원 강화 및 교직원 처우개선 등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대안교육

Thank you

quti2000@ice.go.kr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진단과 새로운 모색**



현장의견 수렴

김남우 조남중학교 교사(학교 내 대안교실)

황혜선 위례한빛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학업중단 숙려제)

김영수 오산중학교장(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 숙려제)

이동수 부산자유학교 교감(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서지우 하늘샘학교 재학생

『학교 내 대안교실』에 관한 고찰

■ 김남우(경기 조남중학교 교사)

1. 9년간의 『학교 내 대안교실』을 돌아보며

2014년 중학교 학생부장을 맡으면서부터 9년간 중학교 3곳을 거치며 ‘학교 내 대안교실’(이하 대안교실)을 운영하였다. 생활지도 부장교사를 하는 가운데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팀을 꾸리고, 직접 수업 하고, 체험학습을 인솔하고, 대안교실 수업 간식을 구입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를 유도해가며 이끈 시간이 어느 덧 10여년 가까이 되고 보니 새삼스럽다.

그 시간 중 2년은 학교를 옮겼을 때 대안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인 관계로 참여하지 못했고, 다른 1년은 대안교실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미안함과 학교에 대한 섭섭함, 운영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쉰 1년이 그것이다.

대안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3년의 시간 또한, 도교육청의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과 함께 도교육청 운영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여 쉽게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에 참여하였다.

지난 6년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 다양한 수업을 기획하여 운영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교장 선생님 허락으로 교정에 텃밭을 분양받아 배추를 키우고 키운 배추로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교장선생님께도 찜을 싸드렸던 텃밭 가꾸기 수업, 드론이 유행할 무렵 드론 조종관을 잡았던 드론수업, 커피공방 사장님께 카레를 얻어 먹이며 커피 내리는 기술을 배우고 축제일에 커피 부스를 운영하여 그 간 속 썩었던 선생님들께 커피를 배달했던 기억, 나의 작은 재주로 테니스를 가르쳤던 수업, 도자기 전통 공예 이수자인 체육부장님께서 도자기 반을 맡아주셨던 수업, 학교 앞 복지관 선생님께 달려가 아이들만 할 수 있게 ‘요리반’을 개설해 달라고 졸랐던 기억,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할아버지 당구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사 부탁드렸던 당구 수업, 곤지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왔던 체험학습, 시화방조제, 광명동굴,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과천과학관, 부천 아인스 월드 모형마을,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 동탄 어둠속의 대화 체험장, 학교 앞 락 볼링장 등 많은 다양한 체험학습을 다녀와 서 하교 시간을 부랴부랴 맞췄던 기억들, 기꺼이 장소를 내어주시고 푸드 테라피 강사를 섭외해 주시고, 원예활동을 통한 심리수업을 개설 해주신 상담선생님, 지금도 진로활동과 독서 논술을 지도해 주고 계신 진로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학년 부장님과 복지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한 일, 학업중단 숙려제 예산을 대안교실 예산과 묶

어서 운영하며 효율성을 발휘했던 일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아주 간단한 간식비는 기안할 시간이 없어 임시 방편으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으니 나의 용돈에게도 감사한다.

2. 알게 된 점

가. 대안교실은 100% 강사를 활용한 교실이 아니다. 학교 별로 대안교실수업 프로그램 중 강사 활용 수업을 제외한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꿈지락’ 프로그램이 좋고, 진로수업이도 좋다. 그리기 수업일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키트를 활용하는 수업이어도 좋다. 어떤 형식이든 교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이면 된다. 아이들을 긍정정인 방향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수업이면 좋다.

나. 대안교실 수업 중 대표가 될 만한 시그니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이다. 꿈지락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중학교 ‘행복수업’ 교과서를 활용한 행복수업을 하고 있으며, 꿈지락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학생의 긍정정서 향상을 목표로 4년째 실시 중에 있다.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중심에 놓고 상담, 예술체육, 체험활동, 진로수업 등의 시간표를 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운영 노하우가 될 수 있다.

다. 대안교실 운영협의체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어느덧 9년 차를 맞이하였다. 초창기 의도한 운영협의체는 학생부교사도, 상담교사도 그 누구도 중심교사가 아니었지만 10여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현재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학교가 (전문)상담교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초등 제외)

학교 입장에서는 매년 업무분장을 하기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상담교사에게도 그런지는 의문스럽다. 운영협의체를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학교라면 그 안의 여러 명의 운영교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분히 교육적이며, 업무가 한 교사에게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학생들에게도 바람직한 수업일 것이다.

3. 개선해야 할 점

가. 대안교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교사에게 인센티브나 보상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운영하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강해 줄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또한 없다. 그저 참여교사의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는 수밖에~

더욱이 수업시수를 인정해 달라는 매뉴얼 상 요청에도 학교 별 상황에 따라 관리자 또는 학교 내

성과급 협의회 등에서 인정범위를 부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교사의 의욕을 더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 운영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수의 교사는 특히-중심 교사-는 수업 운영계획 수립, 운영참여, 관리,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업무에 몰입하면서 어느 정도의 번아웃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차기년도에 학교 내 대안교실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기피 업무로 인식되게 할 우려도 안고 있다. 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중심교사의 업무는 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 운영, 관리 하고 있으므로 번아웃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다. 대안교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관한 재고(再考)이다. 실제로 몇 년간 연속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살펴본다면, 학교 내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업 중단위기 학생은 정작 프로그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학교 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설득도 어렵다. 오히려 차상위 참여대상자 즉, 정성행동 검사 고위험군, 생활교육위원회 다수 회부자 등의 학생들이 오히려 대안교실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고, 점차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 학업중단 예방 기능으로서의 대안교실이라면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전국 초, 중, 고 학교 수 대비 10% 이하의 학교만이 예산을 신청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초등학교의 운영여부를 명확히 인정하여 주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 생각된다.

학업중단 숙려제

■ 황혜선(위례한빛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1.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

학업중단예방 중점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31% 2021년 2.08% 2022년 11월까지 1.76%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2020년 2건 중 2건 2021년에는 8건 중 7건 2022년에는 6건 중 5건 학업중단숙려제 후 학업지속을 선택하였으나 이후 다시 자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자퇴한 학생 14명 중 학업중단숙려제 없이 바로 자퇴가 12명이었으나 실제로 자퇴생 중 한 번도 상담하지 않은 학생은 4명뿐이었고 나머지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유학 후 적응을 위한 상담을 비롯하여 부적응 사유일 때 학생 적응을 위해서 부모님과 학생을 상담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부적응 이유에 따라서 경기도 위탁대안학교(3명) 성남몽실학교(5명) 성남위센터 학업중단예방 뮤지컬(2명) 및 병원형 위센터(2명)에 위탁했습니다. 학생 특성은 SNS, 유튜브시청, 게임 등을 하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가족환경이 학생에게 집중하기 어렵고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외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고 비행 행동을 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나 기타 위탁 등에 관심이 있거나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정시를 준비하고자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학생도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경우 학부모가 많이 지쳐서 학교에서 가는 전화도 받지 않고 학생의 학업지속이나 중단에 대해서 전적으로 학생에게 일임하고 자녀의 학업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학생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부모의 의지가 상실됨과 동시에 학생의 학업지속은 어렵습니다. 학생의 성장에 따른 긍정훈육 방법에 대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기관도 안내하며 주기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자료도 배포하지만 받아들이는 부모님의 자세에 따라서 효과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중단숙려제 매일프로그램은 실제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기관 이외에는 자비이며 아르바이트나 입시 학원 경우에는 실시가 불가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책임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체험 기관을 선정해오면 학교에서 학업중단예방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해주기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의 어려움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2주는 상담교사가 1주일에 2회 상담하는 것이고 매일 프로그램은 1~5주는 학교 협의체나 외부기관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 위원회가 있고 업무 분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업무 분장이 어렵습니다. 학교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업무책임자인 상담교사가 거의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교사가 매일프로그램까지 혼자서 진행한다면 학업중단숙려제 이외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자살, 자해, 성,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상담과 일반 상담이나 기타 교육, 행사 등을 수행하기 어렵고 상담교사는 소진됩니다. 자퇴 신청 전에 학업중단숙려제 안내하도록 담임교사에게 연수하고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중단숙려제 할 것을 권하지만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기 때문에 학업중단숙려제를 강제로 할 수 없고 상담교사를 만나도 부모와 학생이 이미 결정해오면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주 상담은 상담교사가 맡아서 하지만 5주의 매일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예방협의체 교사가 협조하여 모두 함께 참여해야하지만 방과 후 수업이나 수업보충을 해도 그것에 따른 보상체제가 있는데 어떤 보상도 없이 업무 외에 학생에 대한 지도를 맡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진로기관을 미리 학기 초에 다니면서 가능한 곳을 찾아보고 승인하라고 했지만, 학생의 욕구가 어떤지 미리 알아서 기관을 승인에 놓기도 어렵고 그곳을 학생이 원할지도 미지수이며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위탁은 기관 사정 상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갑자기 학업중단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당장 내일부터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은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가급적 2~3일 이내에 실시하지만 성남교육지원청 승인 기관의 경우에는 의뢰학교가 많아서 3~4주 기다려야 합니다.

3. 학업중단숙려제 개선 방향

전문상담교사들과 협의 결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매일프로그램 운영이었고 외부기관 연계의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개선방향 의견으로 첫째 진로, 정서, 학교부적응 등으로 나뉘서 현재 운영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그 분야를 나뉘서 진로체험 경우 예로 경기도는 몽실학교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서적문제인 경우 병원형 위센터, 학교부적응인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위탁대안교육기관, 사회연계기관 가정문제인 경우 가족상담, 가정형 위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위탁하려면 대기자가 많아서 위탁 전에 학업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학생이 원하는 진로체험 기관을 찾고 학교에서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출결까지 고려하며 받아주는 개인 기관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으며 특히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때문에 학교에서 안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셋째 일반고 3학년부터 가능한 진로위탁교육기관

위탁을 무학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넷째 위탁을 보내도 그곳도 다니려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단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후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상담교사가 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현재 2주에서 3~4주 정도까지 확장하고 이후 매일프로그램 운영은 학년부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가 끝나면 학업지속을 위해 교실로 복귀해야 합니다. 상담실이나 기타 다른 곳에 있다가 갑자기 교실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학년부에서 교실 적응 기간을 주고 이를 진행하는 선생님에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교수학습처럼 연구하고 학생이 학교적응을 위해서 더 도울 수 있는 외적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견

2022.10.9.자 언론에서 학업중단숙려제 후 58.1%, 66.6% 학업지속으로 학업중단숙려제 효과는 미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로 한 명이라도 남았으면 그건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퇴는 큰 결심이며 자퇴하려는 학생은 대부분 학교 부적응 사유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유지하게 시키는 노력은 참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2주간 4번의 상담으로 학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즉흥적인 판단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하지 않고 그냥 상담만으로도 결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부모님과도 어느 정도 결정하고 왔을 때 결심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것에 따른 책임도 있어서 마지막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며

■ 김영수(오산중학교 교장)

1. 학교 내 대안교실과 학업중단숙려제를 바라보는 교사의 눈

‘바른 인성과 핵심역량을 갖춘 품격있는 인재 양성’

본교의 교육 비전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나온 결론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기를 수 있다면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등 학생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학교 비전을 구현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활동 역시 선생님들의 몫이다. 선생님은 하루 8시간 근무하시며 3~4시간을 수업 하시고, 1~2시간을 수업 준비하시고, 1~2시간을 학교 업무에 할당하시며 근무하신다. 학생들을 만날 시간은 업무 시간, 수업 준비 시간을 쪼개 만나고 계신다.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성장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심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지나고, 2022년에 접어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악화되며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올해는 지난 2년간 나타났어야 할 다양한 학생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사람과의 관계성이 부족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지는 영향을 주었음을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이해하고 있다.

학교에는 이 학생들을 진단하고 상담하기 위한 위클래스가 운영된다.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선생님은 학생을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에게 위탁한다. 이 과정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상담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다. 상담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께서 상담 전문 교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위클래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내 대안 교실을 운영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교육활동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선생님들은 위클래스에서 운영하는 대안 교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위탁 학생들의 사전 및 사후 교육활동도 함께 해 주었다. 그러나 대안 교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활동을 마친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학생은 가정에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 는 학년이 올라가며 지속적으로 부적응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바쁘게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학년이 바뀌며 담임 교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학생의 부적응 문제를 학생인권부에 의뢰를 하게 된다. 학생인권부는 각종 규정에 따라 학생 사안을 처리하게 되며 가정

나 개인적인 학습 부적응이 학교 부적응학생으로 전환되고 만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장기 결석을 하게 되고 장기 결석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여 학업중단숙려제를 학부모에게 제안한다. 학부모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더불어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아이에게 위클래스 지원을 전하지만 학생의 학업 중단 의지를 꺾기 어렵다.¹⁾

2. 학교 내 대안 교실과 학업중단숙려제가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 교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담임 선생님과 운영하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학교내 대안 교실을 운영하는 방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부적응의 예방과 사후 조치를 위한 운영은 기수제 운영이 적합했다. 전일제 또는 반일제는 운영하시는 선생님을 도와 줄 인력이 부족하며, 요일제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수제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되기 전 담임 선생님과 상담과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고, 기수제를 마친 후 참여한 학생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수제를 마치고 2~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 다시 대안 교실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대안 교실은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의 어려움은 이미 학교를 오기 싫어하는 아이, 홀로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과 씨름하는 것으로 자신을 만들어 온 아이를 학교 위클래스에 또는 지역 위센터(전문상담기관)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2019년 이전까지는 학부모와 선생님의 많은 노력으로 학생을 설득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학업중단숙려제의 결과였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혼자서 집에 있는 경험을 많이 했던 학생들은 2022년이 되며 학업중단숙려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학교 내 대안 교실과 학업중단숙려제는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

학교내 대안 교실의 주체가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및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대안 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대안교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선생님의 수업 시간과 수업 준비 시간을 나누어 가며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 귀를 기울일 수

1) 학업 중단 학생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학업중단 학생은 4만 2,755명으로 2020년 3만 2,057명에 비해 1년 만에 33.5% 급증.

초등학생 학업 중단 학생은 1만 5,389명으로 전년대비 3,777명 증가, 중학생은 전년대비 1,259명 증가한 7,235명 학업 중단, 고등학생 역시 5,692명 증가한 2만 131명 학교를 떠나.

학업 중단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 중단률도 2020년 1.6%에서 2021년 0.8%로 증가.

출처: 주간교육신문, 2022.10.3. 제1477호. '학교 떠나는 학생 급증' 중에서

가 없다. 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로부터 소외될 때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대상이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마음속에 만들어진 불만을 표현할 대상을 찾게 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를 만나 더 좋지 않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안 교실의 대상이 되는 학생보다 운영하는 선생님에게 초점을 맞춰 정책이 개발되길 바란다.²⁾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 내 대안교실과 짝을 이뤄 진행하게 된다. 학교 내 대안교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그런 학생들은 이미 대안교실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학생 자신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거나, 학습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고 판단한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는 성공하기 힘든 제안일 것이다. 이제 이 학생들이 학업 중단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활동을 개발하고, 학업 중단이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그 곳을 통해 중단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대안 교실이 몇몇 학교에 개설되고, 이를 운영하는 선생님과 직원을 보조해 주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 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도 학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3.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는 교육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각과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시며 웃으시며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학급 아이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 천사를 만나고 오신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또한 학생과 갈등하며 울고, 마음을 다치고 갈등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계속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선생님, 학생들의 가정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시간이 없으신 선생님이 계실 때 학교 내에서 생기는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줄기가 쉽지 않다. 선생님의 가치를 높일 때 학생들의 가치가 높아지며,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때 학교 부적응 학생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원인들이 해결될 때 아이들은 학교와 선생님에게 마음을 주게 된다. 선생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된다면 선생님이 학교 생활 부적응학생 지도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보듬어 안고 교육하실 수 있을 것이다.

2) 2022학년도 학업중단 예방 지원 사업 운영 희망교 공모 및 신청 계획(요약본, 2021.12.)[분야: 학교 내 대안교실] 중 ○ 유의 및 안내 사항의 내용

- 별도 교원 증원, 기간제교사 배치, 시간강사 채용, 학급 증설 등은 실시하지 않음
- 방과후, 주말, 방학 등은 가급적 지양(일회성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학급 또는 학년 전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불가
- 외부기관(병원, 상담센터 등)을 이용한 개인의 심리상담비 혹은 치료비 등은 지원 불가
-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 내 대안교실 추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 이동수(부산자유학교 교감)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 학교부적응 또는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성, 예술, 문화,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를 운영하는 기관

○ 어떤 학생들이 위탁 하나요?

-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는데 반해 일반 교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학생
- 소규모 교육기관에서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학생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원적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하는 학생
- 발달장애나 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
-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 지각, 결석, 무단이탈, 조퇴 등을 반복하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 또래와의 갈등, 교사의 지시불이행, 흡연·음주와 같은 비행을 반복하여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장점

-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대안교과운영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학교 적응력 강화
- 위탁기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재적학교 졸업장 취득

3. 현장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방향

○ 교무행정

어려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용불가
-----	----------------------



현장의견 수렴

개선방향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부분적 허용 - 출석부, 성적, 상담일지 등에 대한 열람 및 기록
------	---

○ 학교운영

어려움	위탁교육기관 대부분 개인(법인)소유의 건물 또는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하지만, 자가소유 임대료 보존, 월임대료 지원이 없어 부담
	학교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 고장 시 수리·구입에 대한 어려움 (예) (일반학교) 에어컨 노후화 및 고장 시 사용연한 기준 교체 (대안학교) 사유재산 증가 이유로 지원 불가
	대안교육에 전문화된 경력교사(장기근무자) 이탈 (급여 문제)
	학생의 요구에 맞는 대안교과 강사 수급 (강사료 문제)



개선방향	교육청 지정 폐교활용 및 교육공간 제공
	학교시설 노후화(고장 등)에 따른 수리 및 구입 유연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사 복지 향상
	지역 내 위탁교육기관의 대안교과 인력풀 구성 및 강사 복지 향상

○ 담당교사

어려움	담당 학생수 증가에 따른 업무(교육, 관리, 상담 등) 과중 - 다양한 유형의 학생에 따른 요구사항 증가 -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을 가진 학생의 통제불가 상황 - 기준인원(20명) 초과 학급수 증가
-----	---



개선방향	학생 유형 및 요구에 따른 대안교과 프로그램 개발
	정신건강 전문가 등 학교방문 지원사업 및 학생유형별 전문상담 - 교사연수를 통한 교사역량 강화 - 학교·학생·학부모와의 유기적 상담 (유관기관 협조)

○ 기타사항

- 위탁교육을 원하는 학생이라도, 위탁절차상 원적교 동의(학교장 결정)가 없을 경우 위탁교육의 제한
- 학업수준 차이에 따른 보통교과수업 어려움

■ 서지우(하늘샘학교 재학생)

안녕하세요. 하늘샘학교 재학 중인 서지우입니다. 저는 원래 특성화고를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sns에서 어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현장 실습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걸 본 저는 이대로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목표로 하던 진로가 진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자기주도학습에 익숙지 않던 저는 갑작스럽게 도입 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때문에 자연스레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일상에 지쳐버렸고, 점점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니 학교를 나가기 꺼려졌고 그 후로는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를 빠져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문득 "이렇게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고 자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평소 친하게 연락을 주고 받던 언니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인사를 주고 받던 문자는 저의 상황과 언니의 조언으로 인해 자연스레 고민상담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미 자퇴를 경험한 언니에게 제 상황과 고민을 털어 놓았고, 언니는 그런 저에게 위탁 대안학교라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평소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위탁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은 그 언니의 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위탁 대안학교의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위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홀로 위탁을 가야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저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 중 한 명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대안학교에 대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은 모두 제가 알고 있던 얘기들 뿐이었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학교 위클래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던 와중 상담 선생님께서 저는 위탁 대안학교의 대안 교과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통해 대안학교에서는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정보들을 통해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로 등교하게 된 첫 날, 저는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마중나와 주신 담임선생님과 아직 친구가 없어 밥을 혼자 먹게 된 제게 함께 먹자며 손을 내밀어주신 선생님들 덕에 자신감을 얻게 된 저는 학교에서 더욱 빠르게 적응해갔습니다. 어느날은 대안교과 수업 중 하나인 제과제빵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수업은

저에게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줄곧 베이킹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간 학업과 여러 걱정들로 인해 베이킹을 향한 관심을 잠시 내려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제과제빵 수업을 통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진로의 길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로의 길이 정해지니 자연스레 대학진학에 대한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닌 진로가 생기게 되니, 저는 다시 학업에 대해 흥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은 나날이 좋아지게 되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좋아진 성적으로 인해 저는 그전에는 생각지 못한 진로들까지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여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라고 느낀 것들이 참 많은데요. 학교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업들이 일반 교과가 아닌 대안 교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업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 한 것 같습니다. 제과제빵, 예술감성, 클라리넷 등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흥미를 알아가고,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지루해질 때 쯤이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좋았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평소에도 작은 것 하나하나에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지각을 하지 않고 늘 제 시간에 오는 것을 본 선생님들은 “지우의 무기는 성실함이야.” “지우는 뭘 해도 끈기와 성실함으로 잘 할 수 있을 거야.”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사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게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늘 쉽게 포기하고 끈기가 없다고 생각한 제가 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느린 저에게 선생님들은 빠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 다. 시간의 제약을 주기보단 끝까지 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 주셨습니다. 또 제가 느린 것이 아닌 성격이 꼼꼼한 거라며 긍정적인 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퇴를 하지 않고, 하늘샘에 오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에 위탁을 다니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위탁대안학교에 대해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인터넷에 대안학교라고 검색을 하면 자퇴를 하고 간다거나 돈을 많이 내야 하고 학업 인정이 안 되는 곳은 점정고시를 봐야한다는 글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중학생 때 제가 대안학교에 알아보자 상담 선생님은 대안학교는 돈이 많아야 들어갈 수 있다며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때 중학생도 다닐 수 있는 위탁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저는 거길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 걸 제외한다면 저는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학교가 주는 의미는 안정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활패턴이 자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안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패턴을 바

로 잡아주게 되니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던 저는 하늘샘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가는 재밌고, 집보다 편했던 순간이 많습니다. 저에게 학교는 정신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곳이며 안정감이 드는 곳입니다. 대안학교를 통해 학교에 흥미를 되찾고 학생으로서 무사히 본분을 마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에 있어 이런 흔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Memo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진단과 새로운 모색**

인 쇄 2022년 11월 30일

발 행 2022년 11월 30일

발 행 처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인 쇄 처 크리커뮤니케이션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문 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044-415-2408)

• 이 책의 내용은 www.gotoschool.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